

“혁신적이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서 일을 개선하고 추진해야 할 터...”

안녕하십니까?

저는 전북협의회 회장으로서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금년 신입이사를 맡은 정명운입니다.

회원으로서 느꼈던 점이나 지역협의회장으로서 일을 추진하면서 느낀 점과 연합회에 바라는 사항과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을 편안하게 적어 봤습니다.

사실 제가 약 10여년 전에 연합회 정기총회를 참석 했었는데 그 행사 규모 및 분위기 등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많이 안타깝고 속상했습니다. 제가 속해 있고 또한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연합회가 이처럼 초라해 보이다니... 한없는 실망감을 가지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.

지역으로 돌아와서 다른 단체들을 살펴보니 일개 지부인데도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행사를 규모 있고 알차게 추진하는 걸 보고 속이 더 슬퍼졌습니다.

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커나가는 연합회 및 전북협의회를 보고 가슴 뿌듯함을 느끼고 자신감도 얻었습니다. 그리고 연합회 전임 이상호 회장님과 신입 박천상 회장님께서 추진하셨던 사업 또는 계획을 하나하나 살펴보면, 지역협의회 활성화, 연합회 재정자립의 정착, 회원영입 배가운동, 환경인회관 건립기금 및 연합회 발전기금 모금운동이 있고 특히 환경기술인의 날 정착과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실시 추진 및 교육연수원 설립, 환경전문교육기관 지정, 환경기술인 경력시스템 제도 도입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.

모두 하나같이 중요한 우리들의 숙원사업으로서 꼭 성취되길 바랍니다. 아니 이제는 옆에서 그냥 바라기만 하면서 지켜만 봐서는 안 됩니다.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자기일 같이 앞장서서 나서야 합니다. 그냥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지켜볼 게 아니라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합니다. 환경인 모두의 전폭적인 관심과 협조, 실질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.

사실 우리 환경기술인들의 위상이 좋아지고 높아졌습니다. 과거 배출시설관리인이던 법적명칭도 환경관리인으로 바뀌고 또 환경기술인으로 바뀌었고, 또 회사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과거에 비하면 천양지차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부서가 되었고 지역사회에서도 우리들을 대하는 분위기가 달라진 만큼 우리들도 그 위상에 맞춰 더욱더 변모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. 연합회와 지역협의회, 회원이 삼위일체처럼 행동하고 함께해서 우리스스로 환경기술인의 위상을 높여가야 합니다.

또한 우리들의 위상은 어느 누군가 주는 게 아니고 우리자신이 스스로 노력한 대가만큼 쟁취하고 찾는 것입니다. 각자 자신이 몸담고 있는 현 위치에서 안일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혁신적이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서 일을 개선하고 추진한다면 그 위상도 달라질 것입니다.

우리 모두 연합회와 지역협의회에 대한 참여와 협력, 그리고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한 변화된 모습으로 자기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우리 모두 함께 도약·발전토록 힘차게 뛰어봅시다. ◀

권 · 두 · 언



정명운

(사)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

이사

전북환경기술인협의회

회장